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1(금) ~ 2024.3.7(목)

제공일시 2023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22(금) ~ 2023.12.28(목)

제공일시 2024 01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이어 EU도 '영원한 화학물질' PFAS 식품 포장재 퇴출

- 유럽연합(EU)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로 만든 식품 포장재를 금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EU 의회가 4일(현지시간) 밝힘
- 아울러, 204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을 15%까지 줄이기로 하는 등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도 합의함
- 새로운 협약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식품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PFAS 사용을 금지함. 또, EU 국가들은 신선한 과일 및 채소 포장과 케첩 봉지, 호텔에 구비된 세면 용기 등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형태를 2030년부터 사용해서는 안 됨
- 다만, EU가 당초 계획했던 골판지 패스트푸드 상자와 일회용 커피 컵을 금지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함. 해당 법안은 잠정 합의된 상태로 의회와 회원국 과반 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

(서울경제 2024.3.5) 김경미 기자

2. EU, 화석연료 기업에 개도국 기후 피해 지원금 추가로 내라

- EU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전달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을 화석연료 기업에게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함
- 3월 말 열릴 EU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성명서 초안을 확인한 로이터는 총 27개 국가가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함
- 성명서 초안에는 "공공 금융만으로는 새로운 목표에 필요한 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화석 연료 부문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출처에서 혁신적인 추가 자금을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말함
- 한편, 지난 4일(현지시각) 아프리카가 2030년까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재정보다 2조5000억달러(약 3337조5000억원) 부족하다는 유엔의 보고가 발표됨

(임팩트온 2024.3.6) 유미지 기자

3. 美뉴욕시, 2040년까지 녹색일자리 3배 늘린다... 녹색경제 실행계획 발표

- 지난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가 녹색경제 실행계획(Green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함. 이번 계획에서 가장 야심 찬 부분은 녹색일자리 증가임
- 뉴욕시는 녹색일 자리를 2021년 13만 개에서 2024년 40만 개로 3배가량 늘릴 계획을 발표함
- 뉴욕시는 뉴욕항을 따라 브루클린 해군 조선소, 브루클린 육군 터미널, 거버너스 섬을 중심으로 녹색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후 교육, 연구, 상업화 및 훈련을 위한 기후 협력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4.3.6) 유인영 기자

4. 호주, 89조원 투자로 청정 에너지 시스템 혁신 나선다

- 호주 정부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위해 670억달러(약 89조1569억원) 규모의 야심 찬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이 계획은 재생 에너지 발전과 파견 가능한 용량을 대폭 확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23GW의 재생 에너지에 520억달러(약 69조1964억원), 9GW의 청정 파견 가능 용량에 150억달러(약 19조9605억원)로 구성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3.4) 노정용 기자

1. 온실가스 배출권 업체별 유상할당 낙찰수량 한도 확대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서 업체별로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입찰일 입찰 수량의 15% 이내에서 '15% 이상, 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함
-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변경계획'을 공고함
- 환경부 관계자는 "입찰에서 받아갈 수 있는 유상할당 물량이 적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 이번에 낙찰 수량 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함

(ESG경제 2024.3.6) 이신형 기자

2. ESG 넘어 '자연자본 공시' 추진 움직임... 환경부, 대응방안 논의 착수

-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인 '자연자본 공시'의 국제사회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환경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함
-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개최 예정인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할 계획임
- 아울러, 협의체 운영계획과 기업의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뉴스1 2024.3.5) 심연기 기자

3. 한-미-일-EU 배터리 산업 대표체, 세계배터리포럼 4일 공식 출범

- 한국, 미국, 일본, EU의 배터리협회가 주축이 된 '세계배터리포럼(WBF)'이 공식 출범함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4일 WBF 발족을 위해 한국·미국·EU·일본 배터리 협회 간 MOU를 체결함
- WBF 포럼은 한국, 미국, EU, 일본 협회 주관으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임. 제1회 WBF는 한국배터리 산업협회가 주관해 4일부터 이틀간 열림
- 한국, 미국, EU, 일본 등 5개 협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요국 배터리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함

(디일렉 2024.3.4) 이민조 기자

4. 전국에 30만기 있는 전기차 충전기, 올해 15만기 더 늘린다

- 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기를 15만기 확충함.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30만대 설치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45만기로 늘린다는 계획임
-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작년(2625억원)보다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렸다고 5일 밝힘. 지원 사업은 오는 6일 시작됨
-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 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완속과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모두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이 투입됨

(조선일보 2024.3.5) 손택호 기자

1. 셰브론, 캘리포니아 태양광 수소 프로젝트 착수... 2026년 상용 가동

- 셰브론 뉴 에너지(Chevron New Energies, 이하 셰브론)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트럴 밸리에서 태양광 수소 시설 개발에 뛰어듦
- Environment Energy LEADER 등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셰브론은 시설 준공을 거쳐 2026년 초부터 수소 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5MW 규모 태양광 전력을 통해 하루 약 2톤의 수소를 생산하게 됨

(인더스트리뉴스 2024.3.6) 최용규 기자

2. “전기화의 다음 단계?” BMW 그룹, 태국서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공장 세운다

- 독일 BMW 그룹이 태국 라용에 5세대 고전압 배터리 공장의 공동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
- 곧 완공될 고전압 배터리 공장은 4000 평방미터 규모로, BMW 그룹의 태국 법인인 BMW 그룹(태국)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 새로운 조립 라인에서는 수입된 배터리 셀을 모듈로 변환한 후 고전압 배터리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뤄짐
- BMW 그룹은 이 프로젝트에 약 16억바트(약 600억원) 이상을 투자함

(M투데이 2024.3.4) 임현설 기자

3. 전환 투자에 힘쓰는 블랙록... 천연가스전송시스템社 1조5209억원에 인수

-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천연가스전송시스템(PNGTS)을 모건스탠리와 함께 11억4000만달러(약 1조5209억원)에 인수했다고 로이터가 4일(현지시간) 전함
- 블랙록에게 천연가스전송시스템을 매각한 업체는 TC에너지로 이 회사는 부채를 줄이고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 결정을 내림
- 블랙록이 LNG 인프라에 투자한 이유는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환 투자에 힘을 쏟겠다는 복안으로 분석됨

(임팩트온 2024.3.6) 홍명표 기자

4. 스텔란티스, 벤츠와 손잡고 공장 4개 짓는다... 어디에?

- 스텔란티스가 메르세데스-벤츠와 손 잡고 대대적인 공장 건설에 뛰어듦
-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릭은 “스텔란티스와 메르세데스-벤츠가 47억달러(를 확보해 4개의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한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와 벤츠는 향후 수 년간 EU 전역에 4개의 전기차 전용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임
- 현재 독일 라인란드팔츠주 카이저슬라우테른과 이탈리아 테르몰리, 프랑스 등이 유럽 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 총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데일리카 2024.3.1) 박경수 기자

5. 中 BYD, 韓 충청북에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

-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충청북도에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추진함.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BYD는 한국을 전략 생산 거점으로 전기 승용차 생산과 글로벌 판매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 BYD 본사와 충청북도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수 차례 만나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 BYD는 충북 신공장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기차의 반조립(CKD), 부분조립(SKD) 생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전자신문 2024.3.4) 정치연, 김지용 기자

1. 현대건설, 한·미·영 기술동맹 체결... “英 SMR 사업 출사표”

- 현대건설이 영국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을 위해 원자력 분야 글로벌 톱티어 기업 간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현대건설은 5일(현지시간)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 이하 홀텍)과 함께 영국 발포어 비티(Balfour Beatty), 모트 맥도널드(Mott MacDonald)와 각각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힘
- 현대건설과 홀텍(이하 팀 홀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선정 프로젝트 입찰서 제출 △영국 SMR 배치 최종 투자 선정을 위한 시장 경쟁력 향상 △향후 SMR 최초호기 배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에 긴밀한 협력할 계획임

(매일경제 2024.3.6) 조성신 기자

2. 한국타이어-SK케미칼-효성첨단소재, 국내 최초 화학적 재활용 PET 타이어 상업화

- SK케미칼, 효성첨단소재(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가 ‘순환재활용 페트(PET, 폴리에스터) 섬유 타이어코드’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iON)’ 개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힘
- SK케미칼, 효성첨단소재, 한국타이어는 2년여에 걸친 협력을 통해 이 타이어를 공동개발함
- SK케미칼은 순환재활용 페트 ‘스카이펫(SKYPET) CR’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성첨단소재는 이를 원료로 해 고강도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Recycled PET 원사) 타이어코드를 개발함
- 이렇게 개발된 타이어코드는 한국타이어의 프리미엄 전기차용 타이어 아이온 브랜드에 적용함

(한국NGO신문 2024.3.6) 이용현 기자

(동아일보 2024.3.6) 박현익 기자

3. 삼성SDI, 인터배터리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 공개/ SK온, SF 배터리로 인터배터리 ‘급속충전 혁신상’

- 삼성SDI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전고체 배터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5일 밝힘
- 삼성SDI는 900Wh/L 전고체 배터리(ASB-All Solid Battery)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업계 최초로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발표할 예정임
- SK온은 어드밴스드 SF(Super Fast) 배터리로 인터배터리 주관 ‘급속충전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힘
- 어드밴스드 SF 배터리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는 9% 높이면서 급속충전 시간을 유지한 제품으로 기아 EV9에 탑재됨. 1회 충전 시 최대 501km를 주행할 수 있음

(이투데이 2024.3.5) 김민서 기자

(전자신문 2024.3.5) 정현정 기자

4. HMM, 獨 물류사와 탄소감축량 제공 ‘그린세일링 서비스’ 첫 계약

- HMM이 독일 물류기업 헬만과 탄소 감축량을 제공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힘
- HMM의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저탄소 연료를 선박에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탄소 감축량을 거래하는 것으로 글로벌 해운사와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친환경 서비스임
- HMM은 바이오선박유 사용량 확대, 대체 연료 도입, 다양한 협력방안 개발 등을 통해 ‘그린 세일링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방침임

(뉴스핌 2024.3.4) 김아영 기자

5. SK에코플랜트, 이집트 태양광·풍력으로 연 25만톤 그린암모니아 만든다

- SK에코플랜트가 중국 최대 국영건설사 CSCEC(중국건축공정총공사)와 이집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공동개발에 나섬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8일(현지시각) CSSCEC와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국영송전회사(EETC)·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국부펀드(TSFE) 등 주요 정부기관과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힘
-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양사는 태양광 500MW, 육상풍력 278MW 등 총 778M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게 됨

(라이선스뉴스 2024.3.3) 박창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3.1(금) ~ 2024.3.7(목)

제공일시 2024 03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강제노동 생산 금지법 합의... 의혹 아닌 증거 있어야 조사

(인팩트는 2024.3.6) 송준호 기자

- EU는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에 잠정 합의함. EU 이사회는 5일(현지 시각)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간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에 대한 3차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발표함
- 이후 이사회와 의회가 각각 협상안을 승인하면 규정이 발효됨. 시행은 발효가 되고 3년 후에 시작됨. 이 결정은 이사회가 법안을 채택한 지 5주 만에 내려짐
- EU 상반기 순환 의장국인 벨기에의 피에르 이버스 데르마흐너 경제고용부 장관은 ”21세기에도 노예 제도와 강제노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끔찍하며, 새 규정을 통해 이렇게 생산된 제품이 EU 단일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함
- 조사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나 EU 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됨. 역내는 각국의 관할 당국이 수행하고, 역외 제품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조사를 주도할 예정임
- 한 회원국의 특정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은 EU 역내 전체에서 판매가 금지됨. 하나의 회원국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면 다른 회원국들이 이에 동의하고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임. 금지 결정이 난 제품들은 수입 통관 시 당국이 압수함. 시장에 유통된 제품들은 폐기 처분됨
- 다만, 이 결정에 따라 중요 제품의 공급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 당국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기업이 공급망에서 더 이상 강제 노동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공급을 보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이 법안은 미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의 유럽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EU는 미국처럼 중국의 신장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강제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역외 지역의 제품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중국을 저격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미국의 UFLPA보다는 제재 강도가 약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과 EU의 규제법이 제품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벌어진다고 짚음
- EU 협상안은 해당 제품에 강제 노동이 사용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인해야 당국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음. 반면, 미국은 강제노동에 대한 의혹만 있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음